

국토교통부, 입체적 경관관리 위한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20. 8. 17.

최근 인천·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디지털 트윈기술*을 적용한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등 가상현실을 통한 국토 경관관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후원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경관, 3차원 경관심의의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관관리 기술의 활용과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3차원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경관심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쉽게 경관에 대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용 기술(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일까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3차원 모델링 위 신규 제작 또는 기개발 및 활용 중인 심의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결과물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현장 시현 및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술은 오픈 플랫폼이나 정부 공간정보 플랫폼의 사용환경에 구현하여 공공·민간 등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경관심의 시 선정된 기술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기술 확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실 속 사물의 가상모델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기술